리더에게 請하다

묘장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복지 현장 속에서 정토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묘장 스님은…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 도리사 주지를 역임했다. 아이티 대지진을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지원단 등에서 단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더프라미스 이사장, 서울 연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나눔 확산에 진력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재단)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오직 나눔을 위해 한길을 걸어온 재단은 불교와 복지가 추구하는 이타행 구현의 역사이며, 불교복지의 성과이자 전법의 전형이 됐다.

지난 30년 간 재단의 발전은 눈부셨다. 1995년 21개이던 시설은 181개로, 300여 명으로 출발했던 종사자 숫자는 5600여 명으로, 10억이 채 안되던 예산규모는 4000억 이상으로, 아동과 노인에 국한됐던 서비스 영역은 아동, 청소년, 보육, 장애인, 노인, 해외구호, 종합복지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260여 명에 불과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도 2만 8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업을 목표로 부단히 정진해온 결과다. 6월 11일 3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소회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척박했던 불교사회복지의 토양 위에서 시작해 오늘날 전국 181개 시설, 큰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와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100년을 바라보며 더욱 견고하고 내실 있는 복지재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크게 다가옵니다.”

– 대표이사 소임 이전에도 상임이사 등을 맡아 재단에서 역할을 해오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뭘까요?

“모든 것은 현장에 있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지사들은 재난현장이나 누군가를 돕는 일을 기획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인상 깊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최근 미혼남녀 인연 맺기인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온 ‘만남 템플스테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름과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종교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 ‘나는 절로’는 지난해 ‘제13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재단 직원들의 합심으로 이뤄낸 결과로 묘장 스님이 앞서 언급한 ‘말이 통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직원들은 매회 머리를 모아 시기와 장소에 적합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 커플 매칭을 넘어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원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나는 절로’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를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더불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겠죠. 특히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 문화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공간 안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난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대중들에게 선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나요?

“올 11월, 첫 혼례가 치러집니다. 현재 세 커플이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도권 남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사찰 중심으로 지역 남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10월에는 김천 직지사, 11월에는 울산 백양사에서 해당 지역 남녀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요. 이 밖에도 8월에는 금융 3사, 9월에는 강원관광재단과 함께하는 지역 연계 사업들도 준비돼 있으니 하반기는 매달 ‘나는 절로’를 운영하게 됐네요.”

불교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청년들 사이에 가장 호감가는 종교로 급부상했다. 불교의 유연한 분위기가 자유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선호를 이끌어 내면서 ‘번뇌하는 MZ 사로잡는 불교’라는 ‘애칭’도 붙었다. 청년들 사이에 불교 인기가 급부상하는 데에는 ‘나는 절로’뿐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몫 했다. 그중 하나가 ‘청년밥심(心)’이다. ‘청년밥심’은 인근에 대학교가 있는 사찰들이 학교와 연계해 학기 중 주 1회 점심 공양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묘장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서울 연화사에서 2024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 개운사와 상도선원, 홍대선원에서 정기적으로 인근 대학 학생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묘장 스님은 연화사에 스튜디오를 마련, 강연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한다.

– 청년밥심 처음 시작이 궁금합니다.

“연화사 옆 경희대에서 ‘불교행복론’ 초청 강의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밥을 부실하게 먹고 있음을 알게 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들을 사찰에 초대해 공양을 대접했는데 ‘집밥 같다’며 좋아했어요. 사찰이 곧 집 같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 그것이 곧 고향과 다름 없지요. 어머니 같은 보살님들이 만들어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올해 창립 30주년 조계종복지재단
181개 시설, 5600여 종사자 함께해
재단 30년 동력, 불자 지지도 한 몫

‘나는 절로’ ‘청년밥심’ 등 흥행몰이
청년들의 불교 호감 급부상에 기여

더프라미스 경험, 재단 활동 도움
“구호 지원 민간 단체 협업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도 관심 쏟을 것”

– 청년밥심 사업이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식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 사업을 많은 사찰에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양주에게 가는 부담과 자원봉사 인력, 예산 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국 어느 사찰에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세팅을 최적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재단의 숙제죠.”

‘나는 절로’ ‘청년밥심’으로 세간의 눈길을 끌기 이전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묵묵히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지원, 불교아동미술큰잔치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4월 11일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 활동에서 재단은 4600만원 상당 구호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2001년부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연간 50여 명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난치병어린이에게 총 25억여 원을 전달하며 희망을 선사했다. 불교아동미술큰잔치는 올해로 17회차를 맞았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묘장 스님은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동력에는 “불자들의 한결같은 후원과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재단이 30년간 이어오기까지, 그 뒤에는 특히 종사자들이 있지요?

“각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묵묵히 헌신해 온 전국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열정은 빼놓을 수 없는 동력이죠. 이들의 마음이 모여 오늘날 재단의 든든한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합한 복지사 처우가 뒤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안타깝지요.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병행돼야겠지요. 재단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소통, 교류하는 다양한 대외협력 단체들과 함께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족 준비도 노력 중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불교사회복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며 종사자들을 위한 아카데미의 본격적인 운영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묘장 스님은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2008년 출범한 더프라미스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을 시작으로 동일본, 네팔, 튀르키예 대지진, 전쟁 지역 등에 출동해왔고 묘장 스님은 단장으로 현장을 누볐다. 스님은 “오랜기간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직접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생명에 대한 깊은 존엄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재단과 더프라미스가 합심해 현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묘장 스님의 역할이 컸다. 재단은 4월 8~16일, 7박 9일간 미얀마를 찾아 구호활동을 펼쳤다.



올해 4월 쌍계사서 진행된 ‘나는 절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응원 방문한 이날, 9쌍 커플이 탄생했다.

– 더프라미스에서의 경험이 재단의 긴급구호 활동 프로세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더프라미스를 운영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 중심으로 불교NGO들이 결합해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는 것은 불교계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프라미스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 또한 다양한 외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복지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재단의 다양한 활동에서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재단 자체 모금 진행뿐 아니라 협력 기관과의 합동 구호 지원 확대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방위적인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단의 최종 지향은 무엇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입니다. 이는 곧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 확산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불교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허브 역할을 공고히 해 전국 각지의 불교사회복지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현대불교신문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창간한 현대불교신문도 지난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재단과 한 살 차이네요.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30년간 이룩한 눈부신 성과만큼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불자들이 현대불교신문과 재단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준다면 두 기관 모두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비나눔과 함께하는 정토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세요.”